

# U-20월드컵 성공개최 열기 K리그로 이어간다

## 전주시, 전북 현대 주말경기 특별노선 1994년 운행

FIFA U-20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도시임을 입증한 전주시가 U-20월드컵 성공개최 열기를 프로축구 K리그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막을 내린 U-20월드컵에서 전주는 시민들의 뜨거운 축구사랑을 바탕으로 개막전 3만8000여 만원관중을 동원한 것을 시작으로 4강전까지 총 9경기에 총 11만9960여명의 관중이 몰려와 대한민국에서 축구열기가 가장 뜨거운 도시임을 재확인했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축구사랑과 U-20월드컵의 성공 개최의 열기가 프로축구 K리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25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현대 모터스FC의 주말 홈경기를 관람하는 시민과 타 지역 축구팬을 위해 1994년 특별노선 총 9대를 운행한다.

1994년 특별노선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평화동→한옥마을→시외.고속터미널→월드컵경기장 구간을 운행하고, 경기 종료 후에는 호남제일문 시외.고속터미널→시외.고속터미널→한옥마을→평화동 방면으로 운행한다.

특별노선 외에도 경기 시작 전후로 월드컵경기장을 경유하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인 71번과 73번, 101번, 309번, 416번 총 5개 노선 22대로 운행될 예정이며, 전북현대 축구팬들은 총 6개 노선

31대를 이용해 월드컵경기장에 갈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2일을 시작으로 전북 현대 경기시 특별노선을 총 14회(219대)를 운행, 1만3000여 명의 관중을 수송했다.

또한 지난 U-20월드컵 대회 기간에도 주말에 치러진 3경기에 특별노선 1994년 총 46대를 운행 3700여 명의 관중을 수송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시는 보다 많은 축구팬들이 1994년 특별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 특별노선 운행시간 및 노선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 전 입장객 수송 후 대기버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경기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택시운수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가로수교통봉사대가 교통자원봉사 활동에 나선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1994년 특별노선 운행 등 축구팬들의 원활한 축구 관람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노선이 1994년인 이유는 지난 1994년 12월 12일 전북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호에 전북을 연고지로 전북현대 모터스가 창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으로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축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특별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 정현을 익산시, 도민체전 당구1위 선수 메달 전수

정현을 익산시가 지난 19일 제54회 전라북도 민체육대회 당구종목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들에게 메달전수 및 상장을 수여했다.

최종오 익산시당구협회장을 비롯한 우승 주역인 강현수, 최문진, 양성민, 최경영, 박성민, 이병석, 신호균 등 7명의 선수들은 도민체전에서 당구종목 1위에 올라 익산시가 당당히 2등을 차지하는데 공헌했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선수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협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현수 선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 이미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대회 유치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고창북분자배 배드민턴대회 성료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인의 기량을 겨룬 '제9회 고창북분자배 배드민턴대회'가 최근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창군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700여 팀의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참가해 남·여 복식 및 혼합복식으로 나누어 펼쳐졌다.

고창북분자배 배드민턴대회는 참가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드민턴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배드민턴의 생활체육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회결과 ▲30대 혼복A급 전주PB 강태공 심민하, 남복A급 플리트 인국 이승민, 여복A급 플리트 박성이 심민하 ▲40대 전 혼복A급 플리트 진순호 이명훈, 남복A급 플리트 진순호 강안규, 여복A급 순창연합 김은자 정영미 ▲40대 후 남복A급 비봉 박남진 기종태, 여복A급 덕진클럽 이성희 김준임 ▲50대 혼복A급 만연 김병훈 강정란, 남복A급 만연 김병훈 황태양, 여복A급 수련원 유영순 신숙자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고창군수배 당구대회 250여명 참가 성공적 개최

전라북도 생활체육 당구인의 기량을 겨룬 '제9회 고창군수배 당구대회'가 고창읍 소재 탑 당구장을 비롯한 지역 내 당구장 4곳에서 최근 열렸다.

당구를 사랑하는 전북 생활체육인 25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개인전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돼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올해 처음 열린 '고창군수배 당구대회'는 고창군당구연맹 회원들이 참가자 모집부터 대회장 준비 등 대회 운영 전반을 직접 준비해 적은 예산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당구의 생활체육 정착 토대를 마련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당구는 이제 남성들의 스포츠만이 아닌 여성과 학생들도 즐기는 대중화된 스포츠로 사랑받고 있다"며 "고창군은 당구를 통해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도록 노인복지회관에서 당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 포켓볼대회'도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구가 건전한 여가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KLPGA 투어 '대세' 김지현, 내친김에 3주 연속 우승 도전

## 내일부터 나흘간 경기 안산 대부도 아일랜드CC 서 열리는 '비씨카드·한경레이디스컵'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세로 떠오른 김지현(26·한화)이 내친김에 3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김지현은 내일부터 나흘간 경기 안산 대부도 아일랜드CC(파72·6892야드)에서 펼쳐지는 KLPGA 투어 비씨카드·한경레이디스컵 2017(총상금 7억원)에 출전한다.

지난 주말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에서 역전 우승하며 생애 첫 메이저타이틀과 함께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한 김지현은 올 시즌 가장 먼저 3승 고지를 밟았다.

지난해 7승을 거두며 KLPGA 투어를 휩쓴 박성현(24.KEB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4승을 올렸다.

박성현이 미국으로 떠난 올 시즌 KLPGA 투어는 생애 첫 우승자 등 매 대회 다른 챔피언을 배출하며 절대 강자 없는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 했음을 알렸다.

하지만 최근 한 달여 동안 김지현이 늦깎이 데뷔 첫 우승과 함께 3승을 쓸어 담으며 대세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2주 연속 정상에 올랐던 김지현은 내친김에 이번 대회를 통해 3주 연속 우승으로 확실한 독주체제를 갖추겠다는 각오다.

박성현을 비롯해 신지애(29), 유소연(27·메디힐)이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거둔 바 있지만 3주 연속 우승은 역대 KLPGA 투어에서 서희경(31)이 유일하다.

서희경은 2008년 8월 '체리티 여자오픈'을 시작으로 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 대회 '빈하이 오픈 2008'에서 연거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시즌 5억8015만원의 상금을 수확하며 상금순위 1위에 오른 김지현은 대상포인트 부문에서도 선두 자리를 노린다.



지난 18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CC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제31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최종라운드에서 우승자 김지현이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대상포인트 규정에 따라 50점이 주어진다.

현재 212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 김지현은 1위인 이정은(21·토니모리·280점)과는 48점 차다.

김지현이 우승하고 이정은이 톱10에 들지 못할 경우 1위 등극도 가능하다.

경쟁자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국내 복귀 후 아직 우승이 없는 장하나(25·BC카드)는 후원사가 주최하는 대회인 만큼 우승을 다짐하고 있다.

KLPGA 투어 복귀 후 3개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2차례 이름을 올렸지만 9위와 10위로 턱걸이 수준이다. 장하나의 기량과 이름값을 생각했을 때 아쉬운 성적이다.

장하나는 2015년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이지만 지난해에 컨디션 난조로 LPGA 투어 일정을 잠시 중단한 상황에서 출전해 50위로 부진했다.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 오지현(21·KB금융그룹)도 우승 후보다.

지난해 이 대회를 통해 통산 2승째를 거둔 오지현은 올해 이렇다할 성적을 거두

지 못했지만 지난주 한국여자오픈에서 공동 4위에 오르는 등 샷감을 끌어 올렸다.

올 시즌 가장 먼저 다승자 반열에 올랐지만 3승 고지를 김지현에게 먼저 내준 김해림(26·롯데)도 시즌 3번째 정상 등극을 노린다. 최근 2개 대회 연속 7위의 성적을 거두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

대회가 열리는 아일랜드CC는 50개의 벙커가 페어웨이와 그린 주변 곳곳에 위치해 있고, 수시로 해풍의 방향이 바뀌어 정교한 샷이 요구된다.

/김민근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